

“만원 갖고는 밥 한끼에 커피도 못 마셔요”

외식물가 들썩...광주 전년보다 2.9%·전남 2.5% 상승

1인분 최대 1000원 올라...대학생·직장인 점심 값 부담 ↑

“음식값이 올라 가족들과 외식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네요. 이젠 혼자 밥 한 끼에 커피만 사 마셔도 돈 만원 갖고는 턱도 없어요. 저렴한 푸짐하기로 소문난 광주마저 이러니...”

19일 찾아간 광주시 동구의 한 음식점은 이달부터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을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려 받고 있었다. 다른 메뉴도 마찬가지로 6000원이던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도 1000원이 인상된 상태였다.

‘가격인상’ 현상은 비단 음식점들의 문

제만은 아니었다.

광산구의 한 미용실은 남성컷트 비용을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했고, 광주시내 PC방 업체들도 지난달 1일부터 1시간 이용요금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린 상태였다.

PC방 사장 A씨는 “광주 PC방 업자들 대다수가 최저임금이 인상 시기에 맞춰 100원씩 요금을 올렸다”며 “업계 간 경쟁도 심한데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올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인상이 점차 ‘동네

까지 번지면서 서민 가계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값 상승에 못 이겨 가격을 올리고 있고,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날 프랜차이즈 업체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 15일 버거류와 음료 등 27개 제품의 가격을 각각 100~300원 인상했다. 앞서 롯데리아와 KFC도 버거와 디저트, 음료 등 주요제품들의 가격을 100~300원씩 올렸다.

또 놀부부대찌개는 지난달 부대찌개 가격을 400원 인상했고, ‘신전떡볶이’와 ‘고봉민김밥’도 일부 메뉴의 가격을 300~500원씩 올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광주·전남지역의 외식물가 인상

은 수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103.4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올랐다. 전남지역 역시 103.60으로 1.0% 증가했다.

특히, 외식물가의 경우 광주와 전남이 각각 2.9%, 2.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민들의 외식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B씨는 “햄버거 세트메뉴나 떡볶이, 김밥 등 분식에 이르기까지 한끼 식사비가 기본 1만원을 웃돈다”며 “대학에 들어가는 아들의 식비와 용돈을 쟁겨줄 생각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2.82 (+20.99) ↑ 금리 (국고채 3년) 2.30% (+0.04)

↑ 코스닥 875.81 (+27.78) ↓ 환율 (USD) 1067.60원 (-9.60)

코스피 글로벌 혼풍에 나흘째 상승

20.99P 올라 2442.82...코스닥 870선 안착

코스피가 설 연휴 기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혼풍에 힘입어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도 3% 넘게 오르며 870대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99포인트(0.87%) 오른 2442.82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0.69포인트(1.27%) 오른 2452.52로 출발, 장중 한때 2455.12까지 오르기도 했다.

장중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의 매도세에 상승 분을 일부 반납기도 했지만 장 후반 외국인도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 등 탄력을 받아 결국 2440선을 회복했다.

증가 기준으로 244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업계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가 상승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시는 지난 14~16일(현지시간)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0.76%)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다. 지수는 7.75포인트(0.91%) 오른 855.78로 개장한 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시나브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6원 내린 1,067.6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중소 68% “가업 승계 의향 있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최고 애로는 상속·증여세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을 승계할 뜻이 있으며,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지난해 11~12월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 67.8%는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6년(66.2%)에 비해 1.6%포인트 올랐고, 2015년(42.2%)보다 25.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그만큼 가업승계 의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에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자는 전년 44.2%보다 12.2%포인트 증가한 56.4%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완화해야 할 요건이 무엇인가는 질문에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과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를 들었다.

가업승계 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67.8%가 상속·증여세 등 조세 부담을 꼽았다. 이어 자금, 판로 등 종합적 지원정책 부족(17.4%), 거래처 불량 축소, 관계악화(3.0%), 가족(부모, 형제, 친척)과의 갈등(2.8%) 순으로 나타났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T 신임 사장에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일 제18대 사장에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

경기도와 서울농대를 졸업한 이병호 신임 사장은 농식품부 정책보좌관과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사)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 원장,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예냉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영농조합을 설립해 직접 경영하는 등 현장경험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근무를

통한 공기업 경영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개방화 등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민은 걱정 없이 농사는 짓고 국민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며 “출발 51주년을 맞은 aT가 100년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

코픽스 5개월 연속 상승

오늘부터 변동형 대출금리↑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잔액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6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1.73%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2016년 6월(1.75%) 기준 이후 최고치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떨어졌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과거 조달한 저금리 자금이 만기 도래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자금이 신규 반영되면서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은 지난 1월에 전월대비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하락했다.

다만 이달 들어 다시 국제금리가 오르고 있어 내달 고시되는 2월 기준 코픽스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월 기준 코픽스 금리가 바뀌면서 코픽스 금리에 연동하는 은행권 변동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바뀐다.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하는 대출금리는 0.03%포인트 올라가고, 신규취급액 기준은 0.01%포인트 떨어진다.

은행연합회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땐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지역사랑카드 3종 출시...기부하고 혜택받고



광주은행은 19일 ‘광주·전남 사랑카드’를 출시하고, 고향사랑 나눔운동 추진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했다. 왼쪽부터 광주은행 송중욱 은행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시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재규 부회장. <광주은행 제공>

이용 적립금 고객 선택한 지역에 기부·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카드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광주·전남 사랑카드’를 1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 상품은 ‘광주·전남 사랑카드’, ‘광주·전남 사랑 플래티늄카드’, ‘광주·전남 사랑 아너스(Honors)카드’ 3종으로, 카드이용금액의 0.5%를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고향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광주·전남 거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등 외지에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카드 신규시, 광주·전남 23개 지역 중 한 곳을 선택하면 카드이용금액의 일부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다. 카드 디자인도 선택지역의 대표 풍경 및 특산품의 이미지를 넣어 차별화했다.

또한 ‘광주·전남 사랑카드’ 출시와 함께 광주은행 본점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 나눔운동 추진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사랑카드’ 이용금액의 0.5%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광주시는 지역 내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대상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사랑카드’는 골프장 이용금액 10만원당 5000포인트 적립, 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온라인쇼핑·예매·교통 업체에서 이용 시 10% 포인트 적립 등 월 최대 3만 포인트 적립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그린카드 멤버십 서비스도

타재해 고객이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주·전남 사랑 아너스카드’는 VIP고객을 위해 출시하는 카드로 바우처 서비스,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서비스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8년 특별 이벤트로 호텔 라운지 무료이용, 호텔 사우나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광주·전남 사랑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8000원, 해외겸용 1만원, ‘광주·전남 사랑 플래티늄카드’는 국내전용 11만 8000원, 해외겸용 12만원, ‘광주·전남 사랑 아너스카드’는 국내전용 29만8000원, 해외겸용 30만원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카드 이용이 고향에 대한 향수와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 완벽방수
- 내구성보장
- 2중단열
-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복합 (061)683-0485

여수 (061)726-0482

순천 (061)795-0485

광양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